



Market Index / 21일

| | | | | | | | |
|--------------------------|-------------------------|------------------------------|-------|------------------------------|--------------------------|-----------------------------|-------------------------|
| 코스피지수 ▲ 2061.25 +5.54 | 코스닥지수 ▲ 703.98 +1.90 | 유가(WTI, 달러) ▲ 63.10 +0.34 | 환율(원) | 1USD 1215.40 100¥ 1102.95 | 살매 1173.60 팔매 1065.03 | 1EUR 1358.06 1CNY 180.79 | 살매 1305.08 팔매 163.59 |
|--------------------------|-------------------------|------------------------------|-------|------------------------------|--------------------------|-----------------------------|-------------------------|

최저임금 인상... 취업업종 고용 감소 확인

도내 도소매업·음식숙박업 2000명 가량 줄어 인건비 부담 등... 작년 대출 역대 최고 증가율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의 해당업종도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업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파악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37만5000명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8만9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 9만1000명에 비해 2000명 가량 감소했다. 2년전 1분기 당시 9만5000명에 비해선 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4만9000명에

서 4만7000명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5만6000명 안팎과 비교하면 7000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이 기간 취업시간별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 주당 1~17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 대비 19.4% 늘었는가 하면 45~53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지위별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10만7000명에서 10만9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4만6000명에서 24만3000명으로 줄었다. 임금근로자 역시 남성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5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

에 의하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조를 돌파했다.

산업별 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9.5% 늘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집중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힘든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관광공사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종합점수 90.84점 획득

제주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지방공공사와 도내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해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제주관광공사는 서비스 환경 90.83점, 서비스 결과 92.44점, 서비스 결과 91.11점, 사회적 만족 91.79점, 전반적 만족 88.95점 등 종합만족도 90.84점을

받았다.

이 같은 만족도는 국내 7개 관광공사와 도내 4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들 공기업 군에서는 4년 연속 최고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공사는 매년 고객 만족 경영의 실행을 위해 고객 의견 수렴 채널을 다각화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광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부부의 날과 잘 어울리는 '점목 선인장'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전북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직원들이 '비모란'과 '삼각주'를 붙여 만든 '점목 선인장'을 살펴보고 있다. '점목 선인장'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인 '부부의 날'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기도 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 1100원 오른 5500원 부과

내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

21일 항공업계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6월1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4400원에서 5500원으로 1100원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켈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5500원은 5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지만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동결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를 따른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8400원 최대 6만1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9100원부터 최대 5만1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애플수박 올해 첫 출하

애플농협(조합장 김병수)은 발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시 행정보조사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애플수박이 강귀봉 공선회장의 하우스에서 20일 첫 출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올해 애플수박은 2.4ha의 하우스에서 9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생산량은 80t을 전망하고 있다.

애플농협은 1인소비시장 트렌드에 맞는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기술교육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선윤기자

주택청약저축 가입 '쭈욱'... 도민 3명중 1명꼴

4월말 기준 제주 22만6036명
1순위 전체 가입자의 67.1%

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2만6036명으로 지난해말(22만2065명)에 비해 3971명(17.8%) 증가했다. 올들어 월 1000명 가량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적립액이 일정액 이상인 1순위가 15만167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7.1%를 차지했고, 2순위는 7만4365명이다. 2순위 가입자는 2014년 3만4453명에서 2015년 순위통합으로 7만1568명으

로 급증했을 뿐 2016년 8만555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만4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가입자는 2010년 4월말 7만6578명에서 2012년 9만4143명, 2014년 12만1694명, 2015년 14만899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20만7771명으로 처음 20만명을 넘어선 뒤 2017년 21만5511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윤기자

| 하귀2리 | 서흥동 | 유수암리 | 연동1.5름 | 토산리(급매) | 와흘리 | 고산리 |
|--|--------------------------------------|---|---|--|--|--|
|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리산조망 2억2천 |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 좋음 1억5200만 |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복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포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한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동부 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하귀택지개발내 2중주거 319㎡ 4.9억원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해안동취락지구내 주택용지 788㎡ 5억
- ※아리동기차촌내 1090㎡ 9.24억
- 연동2중주택 대 352㎡ 주택122㎡ 11억
- 노형 6차선 점 자연녹지 2,025㎡ 52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400만원
- 어울 제안로인근 바다전경양호 969㎡ 11.7억
- ※합제금강산로인근 신축주택 556/90㎡ 3.95억
- 유수암 펜션 건물488㎡ 대781㎡ 6억원
- 우도하교수동해수욕장인근 5,050㎡ 9.99억원
- ※수선동 저수지인근 카페음료관양호 620㎡ 3.1억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확공 토지 519㎡ 2.5억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83㎡ 6.5억
- ※수선동 일주도로 4차선 점 토지 8,244㎡ 45억
- 판포 바다경관 조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서귀포양양장 16,169㎡ 100억원

천연염색 배우실 분 환영함 이미지 같옷

여름맞이 고객 감사 40~50% 특가세일

천연염색 같옷, 생활한복, 법복, 단체복, 각종 소품

오일뱅크, 화북, 인천문화당, 해창국, 메가박스, 연복로, 차세상, 치과, 신제주, 치과, 올레마트, 태권도장, 천자담배, 파이오AAPT, 이도초등학교

725-0229